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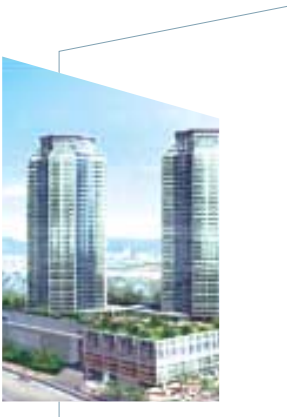
설비건설인 2006년 신년교례회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지난 1월 4일 설비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승일, 홍평우, 박인구 명예회장과 본회 임원, 시·도회장, 서울시 대표회원, 조합 운영위원 및 대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종학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경영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서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금액의 상향조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종학 회장은 「아직도 일부 일반건설업체에서는 4대 사회보험 비용을 극히 형식적으로 반영만 하고 있을 뿐이고, 물가연동제나 설계변경시에도 타협을 하려는 회사가 있다」면서 「이럴 때 우리는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 공사원가 상승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종학 회장은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발주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저와 임직원 그리고 전국 시·도회장들께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업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하였다.

특히 박종학 회장은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인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및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원도급공사에서 시공참여자를 사용한 직영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에만 시공참여자체도를 허용토록 법제화하는 등, 우리 업계에 유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하도급자 산재발생시 산재 은폐를 강요하도록 하는 PQ신인도 제도의 개선과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건설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현실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학 회장은 「새해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르는 주택경기 위축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방혁신 및 기업도시건설과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



대하며, 건설산업의 중요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면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과거의 의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실경영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최우선의 경영전략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정승일, 홍평우, 박인구 명예회장과 설비건설업계 최초로 기성실적 1,000억원을 돌파한 (주)세보엠이씨 김종서 대표이사와 조합 이찬재 이사장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 제의를 하였다.

또한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협의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미래산업의 꽃 설비」라는 홍보용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이번 제작한 영상물 내용은 설비의 의의, 목적, 형태, 종류 그리고 설비의 미래성 등으로 구성되어 제작하였으며, 설비 관련대학 및 공업고등학교와 발주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서울시회

협회 회원가입 안내 및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는 지난 1월 13일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미가입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협회 회원 가입 안내 △2005년 실적신고 작성요령 및 전산패키지(CD)사용설명 등 협회 회원 가입안내 및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한편 서울시회는 지난 12월 23일 결손가정과 빈곤가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보살펴주는 경기도 광명 소재 사단법인 빛나라에 성금을 전달하고 미래사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였다.

또 12월 27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서울시회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복지기관 및 시설을 선정해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2006년 경남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울산·경남도회, 경남도교육감 감사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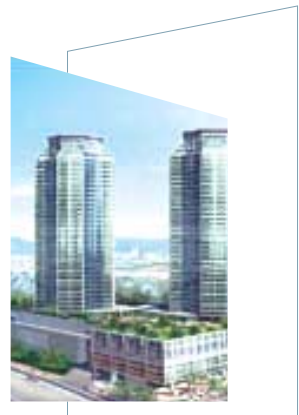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지난 12월 27일 창신대학교 신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6 경남교육계획 설명회」에서 경상남도 고영진 교육감으로부터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울산·경남도회는 그 동안 경남도 내 결식아동돕기, 산학협력 및 장학금 전달 등을 꾸준히 하여 큰 호응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12월 27일 경남도내 초·중·고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2006 경남교육계획 설명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김재홍 회장에게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이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김재홍 회장은 각급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감채를 받는 한편 설비건설업계의 위상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울산·경남도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결식아동돕기 등 온정을 베푸는 한편 성실시공으로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회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 · 소방안전과에 장학금 기탁



대구시회(회장 이한수)는 지난 11월 14일 대구공업대학을 방문하여 건축설비 · 소방안전과에 설비기술자 양성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이날 이한수 회장은 우수한 설비기술자 영성을 위한 대구공업대학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건축설비 · 소방안전과에 대한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을 대구공업대학 이원 학장에게 요청하였다.

한편 대구시회는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 · 소방안전과와 산학협약을 맺고 매년 설비기술자 양성 지원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편 재학생 설비공사 현장실습을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시회 및 울산 · 경남도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시회(회장 김광환)는 지난 12월 30일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소화영야재활원을 방문하여 회원사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탁하였다.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재홍)도 지난 12월 12일 울산시 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결식아동돕기성금을 전달하였다

제1회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주)한발건설



건설사 외주담당자협의회가 주최하고 건설공제조합, 한국기업인증, 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후원한 제1회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설비시공부문 업체에 대전 소재의 (주)한발건설(대표 김영철)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내 100대 건설사 외주부문 담당자들의 추천을 받은 협력업체 가운데 신용도,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건설협력증진대상은 1차 평가에 이어 사후 검증과 방문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는데, 한발건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 솜씨를 선보여 발주자인 원청 건설사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김영철 대표는 “대형 건설사들이 성실하고 우수한 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에서 1회 수상을 차지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하며 “한발건설은 패기있는 젊은 기업으로서 은근과 끈기로 뭉쳐 있으며 일을 맡으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매진했던 것이 상을 받은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시공 실천에 정진하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주)한발건설의 이번 수상에 대해 직원들은 ‘그동안 정성이 깃든 성실시공을 통해 탁월한 시공력을 인증받은 것’으로 평가했고, 지방소재의 설비건설업체가 전국 유수한 건설기업들이 선정하는 건설협력증진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긍지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83년 창업한 이래 (주)한발건설은 22년간 환경경영과 품질경영을 통해 특히 돌발 긴급공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 솜씨로 발주자의 만족도를 높여왔다.

(주)한발건설은 용인 동백 계룡건설산업아파트와 양주 덕정 주공아파트, 대전 관저주공아파트 등을 대표적으로 시공했고, 지난 2003년 주택공사의 우수건설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00억원 정도이다.